

<h1>보도자료</h1>	보도일시	2020. 10. 14.(수) 11:00	 통계청
	배포일시	2020. 10. 14.(수) 07:30	
	담당부서	인구총조사과	
	담당자	과 장: 정남수(042-481-3720) 사 무 관: 서동훈(042-481-3721)	

2020 인구주택총조사, 10.15일부터 인터넷·모바일·전화 조사 시작
 - 전 국민의 20% 표본, 비대면조사 후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 추진
 - 코로나 걱정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

-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내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, 모바일,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.
- 올해는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, ‘반려동물’, ‘활동제약돌봄’, ‘1인가구 사유’ 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.
-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 조사와 국민 20%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.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·모바일·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.
 - 스마트폰으로 응답할 경우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콜센터(080-400-2020, 무료, 08~21시)로 전화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.
 - 인터넷·모바일 조사 화면은 응답하기 쉽게 설계되었으며, 방화벽,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자료의 보안 대책도 강화하였다.
 - 또한 응답자의 비대면조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PC나 모바일, 전화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(모바일상품권 3만원 상당)을 제공한다.

- 통계청은 인터넷·모바일·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참여 독려문자를 보낸 뒤,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.
-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조사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전화 조사가 가능하고, 응답자가 원할 경우 종이조사표로도 응답할 수 있다.
- 외국인도 외국어조사표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, 캄보디아어)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,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제공된다.
- 강신욱 통계청장은 “지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48.6%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IT를 활용한 조사방식에 익숙한 편”이라며, “올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총조사도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동 자료는 '출처 표시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·전화 조사 안내

1 인터넷조사(census.go.kr) 참여방법

■ 참여번호 확인

- 통계청에서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에서 참여번호 확인
- 조사 홈페이지의 참여번호 찾기, 080콜센터의 채팅·전화 통해서도 확인 가능

■ 로그인

- 입력창에 인터넷조사 참여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 후 로그인

대소문자 구분 없이 참여번호 9자리를 입력하세요.

3자리 3자리 3자리 로그인 참여번호 찾기

■ 응답자 정보 및 비밀번호 생성

- ① 응답자 성명 및 연락처 입력
- ② 자료보안을 위해 휴대폰번호에 대한 본인인증(4자리)후,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8~12자리의 비밀번호 생성

■ 표지 ⇒ 가구원 ⇒ 가구 순으로 조사표 작성

2 전화조사 참여방법

■ 콜센터 연락

- ① 응답자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080-400-2020(무료, 08~21시)으로 전화하고, ARS 상에서 '1번 전화조사' 선택
- ② 상담원이 응답자의 참여번호 및 주소 확인 후 전화조사 시작

■ 전화조사 예약

- 조사 홈페이지 '전화조사 예약하기'에서 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, 콜센터 상담원이 해당 시간에 전화하여 편리하게 참여 가능

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 및 전화로 응답하시면 조사원이 별도 방문하지 않아, 부담이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 가능
또한 인터넷 및 전화조사 기간에 참여한 가구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 제공

2020 인구주택총조사 Q & A

1. 인구주택총조사는 무엇인지?

-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·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·가구·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함
- 2020라운드(2015~2024년)에는 238개 UN회원국 중 227개국(95%)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

2.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중요하고, 어떻게 활용되는지?

-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
- 사회통계로는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통계의 근간이 되고, 200종이 넘는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되며,
- 또한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고, 민간기관의 연구와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쓰이며, 국가통계포털에서 백만건이 조회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임

3. 매년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이점은?

- 등록센서스는 주민등록부,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현장조사 없이 인구·가구·주택에 관한 기본 자료를 생산하며,
-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교육, 통근·통학, 복지, 점유형태 등은 5년마다 국민 20%를 읍·면·동별로 표본 추출하여 현장조사 실시

4.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?

- 4인가구 기준으로 15분, 1인가구는 5분 정도 소요되며,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5.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지?

-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
- 또한 인터넷·전화 조사 과정 및 전송에도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

6.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제공되는지?

- 집계 결과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및 KOSIS(국가통계포털)을 통해 공표
- 결과자료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공되며, 마이크로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,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SGIS,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

7. 인구주택총조사에 태블릿은 어떻게 활용되는지?

- 현장조사에 활용하여 종이없는 전자조사 실시가 가능해짐
- 조사원은 태블릿의 전자지도로 쉽게 대상가구를 찾아가고, 조사표 입력과 내검이 동시에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조사 결과가 서버로 전송됨. 또한 조사원의 조사위치도 GPS로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
- 조사관리자는 다양한 현장조사관리를 태블릿으로 하여 재택근무가 가능하며,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자가검진표가 탑재됨
- 또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조사를 완료한 즉시 태블릿의 지도에 대상가구의 색깔이 변하여 조사원이 완료여부를 쉽게 파악하여 조사 중복이나 누락도 방지됨

<붙임3 :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 살펴본 시대 변화상>

▶ (1970년) '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까?'

- 인구조사에서 문맹 여부를 묻는 조사 항목은 문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197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사항목에서 사라졌다.

▶ (1985년, 2000년) '성은 한자로 기입하고 본관을 질문하십시오'

- 집성촌 실태 및 분포, 신규 성씨 및 본관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본관을 묻는 질문은 1985년과 2000년도 두 차례만 실시되었다.

▶ (1960년) 『집 또는 居住』 内に 大廳마루가 있습니까?

- 주택부문이 처음으로 추가된 1960년 총조사의 조사표에 들어간 항목이며, 아궁이의 형태, 라디오, 전등, 외양간 보유 여부도 조사했다.

▶ (1980년) 주로 통학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?

- 1980년 조사에서 당시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근 통학 수단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.

▶ (1985년) 무슨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?

- 1985년 처음으로 종교인구를 조사했는데 보기에는 불교, 기독교, 천주교, 유교, 원불교, 천도교, 대종교, 대순진리회, 기타, 없음이 있었다.

▶ (2000년) 평소 컴퓨터(PC),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?

- IT붐에 따라 2000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상태를 조사했는데,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것이 '사용하지 않음'의 기준이었다.

▶ (2005년) 북한에 헤어져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/인척이 있습니까?

- 2005년에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이산가족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고, 이산가족은 태어난 곳도 물었다.

▶ (2010년)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? 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셧습니까?

-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2010년에는 조사표에 처음으로 현재국적과 출생시 국적, 처음 입국한 시기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.

▶ (2015년) 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그 일자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?

-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2015년에는 경력단절 경험과 이유(결혼, 임신/출산, 자녀양육/교육 등)를 처음으로 조사했다.

▶ (2020년) 이 가구에서 현재 반려(애완)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?

- 올해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(개, 고양이, 기타, 없음)을 키우고 있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한다.

<붙임 4 :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>

	전수 항목(16)	표본 항목(55)		
		현장조사(45)		행정자료(10)
인구 (34)	①성명 ②성별 ③나이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연월 ⑦1년 전 거주지 ⑧국적 취득연도*	①성명 ②성별 ③생년월일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 연월 ⑦교육 정도 ⑧교육 영역 ⑨출생지 ⑩아동 보육 ⑪활동 제약 ⑫활동 제약 돌봄* ⑬통근·통학 여부 ⑭통근·통학 장소 ⑮이용 교통수단 ⑯통근·통학 소요시간	⑰경제활동상태 ⑱종사상지위 ⑲산업 ⑳직업 ㉑현 직업 근무연수 ㉒근로 장소 ㉓혼인 상태 ㉔혼인 연월 ㉕출산 자녀 수 ㉖자녀 출산 시기 ㉗추가 계획 자녀 수 ㉘결혼 전 취업 여부 ㉙경력 단절 ㉚사회 활동 ㉛생활비 원천	①1년 전 거주지 ②5년 전 거주지
가구 (16)	①가구 구분 ②주거시설 형태	①가구 구분 ②1인가구 사유* ③혼자 산 기간* ④반려(애완)동물* ⑤마시는 물* ⑥소방시설 보유 여부* ⑦사용하는 방의 수	⑧난방시설 ⑨주차장소 ⑩건물 및 거주층 ⑪거주 기간 ⑫주거 전용 영업 겸용여부 ⑬점유 형태 ⑭임차료	①주거시설 형태 ②타지 주택 소유 여부
주택 (6)	①거처의 종류 ②층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대지 면적 ⑥건축연도			①거처의 종류 ②층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대지 면적 ⑥건축연도

* 신규항목('15년 대비)